사회 단신

한총련 대의원대회 잠정 유보

지난 10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잠정 유보되었다. 한총련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회장의 원천봉쇄, 행사시 대회장 강경진압 등의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 한 제 6기 대의원대회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총련이 평화적 집회를 거듭 다짐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치안당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를 위해서 "치안당국과 학생대표가 즉각 만나 대화를 해야하며 이를 대구시민들에게 천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 인사 1백인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발족

국민승리21은 오는 15일 종로3가에서 '실업대책본부'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갖는다. 국민승리21의 권영길 대표는 "정부의 실업자대책은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책없이 한켠에 실업자를 양산하는 미봉책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업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동으로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승리21은 오는 23일 서울역에서 '실업자의 날' 행사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한편 이근원 팀장을 중심으로 한 실업대책본부는 실업자 동맹조직사업과 매월 개최할 행사에 실업통계 및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에 옥수수 종자 전달 제의

"단돈 천원으로 북한땅 다섯 평에 옥수수 종자와 비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난 달 23일 흥사단 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진 '북한옥수수심기 범국민운동'이 내건 슬로건이다.

북한은 옥수수 생산의 최적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곡식 전달시보다 3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씨앗과 비료를 전달하자는 것이 이번 행사의 근본적인 취지이다.

한편, 옥수수종자와 비료 구입을 위한 성금기탁행사는 이달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농협중앙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우리의 인권을 조명한다

어둠속의 인권, 새벽을 기다리며

인권, 현 정권도 답보 가능성 비춰… 끊임없는 투쟁으로 개척해가야

박 래 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 인권 유린의 대표적 사례인 양심수, 인권개선의 확고한 의지로 풀어가야 한다

50년전 제주에서는 '빨갱이 사냥'이라는 명분하에 대대적인 양민학살이 이루어졌다. 서너살 젖먹이부터 팔십 노인네에 이르기까지 무차별로 이뤄진 대량학살의 진상은 5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주학살의 진실을 피해자의 증언, 국무부 외교문서, 학자들의 연구성과 등을 담아 만든 다큐멘터리가 '레드 헌트'이다. 그런데 '레드 헌트'를 상영하는 것조차 아직 우리 사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산폭도들의 폭동이라는 것만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유일한 진리이며, 이를 부정하는 어떤 주장도 이적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씨가 구속된 바 있었고, '레드 헌트' 감독 조성봉씨도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기소되어 있다.

한국 전쟁 중에 발생했던 거창 양민학살 등의 학살사건들, 중앙정보부(또는 현재의 안기부)·보안사(또는 현재의 기무사)·경찰 대공분실 등에서 벌어진 고문사건들, 그 고문에 의해 조작 간첩이 되어 한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던 사건들, 의문의 죽음을 당해 아직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의문사 사건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광주항쟁 당시 행방불명 사건, 91년의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등등 엄청난 진실을 담은 사건들이 거의 그대로 묻혀 있는게 사실이다.

반면 과거의 이런 인권유린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공고하게 다졌던 이들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더 높은 자리로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의 실현은 아무리 개혁작업이 가속화된다 해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과거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의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등이 추진될 때 비로소 정의와 인권의 가치는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수 없다. 대통령 자신이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계층에 소속되어 있고, 과거 유신독재 정권의 주체들이 현 정권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지역갈등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현 정권이 과거의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현 정권이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하고, 인권법을 제정하며, 사법개혁의 합리화를 통해 인권침해의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다짐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

단적으로 지난 3월 13일의 양심수 석방은 현 정권의 본질이 그리 인권개선에 의지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였다. 김영삼 정권 출범초 양심수 석방 때의 절반 수준에 머문 이번 석방은 현 정권에서도 여전히 인권문제는 과거처럼 답보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 더욱이 IMF체제 이후 심각한 경제 현실은 사회권의 후퇴와 위축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말 실업자가 2백만명에 이른다는 예측이 있고, 이런 고실업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노동자와 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경제를 살리자는 구호속에 사회적 약자들의 민주적,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이런 인권유린 사태는 철저하게 외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벌써부터 사회에서는 실직자들이 절망 끝에 자살을 하고, 가난이 싫어 목숨을 끊는 중고등학생이 생기고 있다. 최근 도원동에서 일어난 철거폭력사태는 그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노점상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자행되고 있어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생존권은 위협받게 된다.

이렇게 민중들에게 고통을 전담하는 체제가 바로 세계화이고, 따라서 세계화의 본질을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린다는 미국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70년대 수준으로 후퇴하였고, IMF를 극복한 멕시코에서는 3백만의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있다는 심각한 보고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는 인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권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화된 상황일수록 더욱 인권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충실하면서 그를 실현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권은 누가 던져주는 것이 아닌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개척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 단 시 론

이 봄을 위하여

이 창 순
〈사회학과 교수〉

차창 밖 길섶의 개나리, 진달래꽃을 보니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마냥 반갑다. 그러고 보니 주위의 나뭇가지들도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앙상한 겨울 그대로였던것 같은데 어느 순간 성큼 봄 속 깊이 들어와 버렸나보다.

대학시절에는, 그리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가을이 가장 좋았다. 커피향을 앞에 하고 한잎 두잎 스러져 내리는 낙엽을 보면서 빠져들게 되는 센티멘탈한 쓸쓸함이 좋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쓸쓸함이 초라함으로 바뀌고 만물이 움트는 봄이 몹시도 좋아지기 시작했다. 꽃샘추위가 옷깃을 파고드는 이른봄보다는 진달래, 철쭉, 목련꽃이 한창 피는 봄이 더 좋고, 넝쿨장미가 흐드러지게 필 때쯤이면 주위에 활짝 핀 봄기운이 너무 좋아서 어깻죽지가 다 간질간질해질 지경이다.

이제 봄을 이토록 좋아하는 나자신에게서 나이를 느낀다. 중년의 문턱을 힘겹게 넘어가면서 봄의 축복을 절실히 느끼는 때문일게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은 더욱 빨리 흐르는 것 같다. 한 학기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중간시험, 학기말,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일상의 반복이다. 아마도 우리가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은 멀게 느껴지지만, 몇번 다니면 같은 길이라도 매우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인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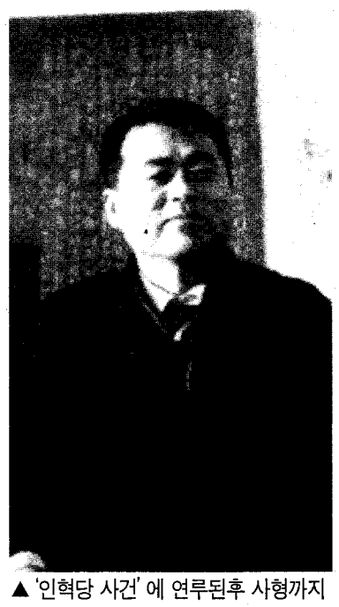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은 대학 4년이 그런대로 꽤 한참 가야할 길로 느껴질 것이다. 3학년, 4학년 선배들, 더군다나 선배조교들을 보면 한참 있어야 선배들처럼 고학년이 될꺼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때로 우리 학생들이 대학의 첫 일년을 입시의 뒷풀이 같은 늘어진 상태로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혹독한 중고등학교 시절과 대학입시를 거쳐 대학교에 들어온 순간 팽팽했던 긴장이 일시에 풀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대학이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대학에 들어와서부터 눈을 번쩍 뜨고 우리 앞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그때 꼭 하지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우리의 대학생활은 우리 인생의 바로 그런 부분이다. 대학시절에 하루하루를 알차게 메꿔 가면서 보다 큰 사회에서의 우리 앞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나는 봄의 눈부심과 설레임을 느낀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땅에 흩뿌려진 넝쿨장미의 꽃잎들에서 봄이 끝나듯이 우리 인생의 봄은 너무나 짧다. 때로 처음 입학했을 때의 맑은 눈빛과 싱그러움이 졸업학년이 가까워 오면서 알게 모르게 세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게되면 나는 괜시리 속으로 미안하고 안스럽다.

오늘의 대학생은 더욱이 IMF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사회의 첫발을 내딛어야할 것이기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꽁꽁 언 겨울 속에서도 화려한 새 봄의 싹이 돋아나듯이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새로운 희망의 싹은 피어날 것이다. 풀과 나무들도 그 앙상한 겨울 속에서 새 잎가지들을 부지런히 만들어 이 찬란한 봄을 세상에 안겨주고 있지 않은가.

□ 고 이수병선생 추모제를 다녀와서

4·19의 진보적 정신을 되살릴 때



▲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후 사형까지

'조직의 핵심은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기회주의로 빠져서는 대중을 지도할 수 없고 대중이 따르지도 않는다.'

이는 민주변혁운동의 지도자인 고 이수병선생의 조직관이다.

지난 8일 종로5가 기독교 회관에서 스물세번째 이수병선생 추모제가 열렸다. 이번 추모제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이수병기념사업회 주최 및 서울캠퍼스 김동일(회계91)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민가협, 4월혁명연구소, 유가협 관계자, 학생 등 약 5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회사, 고난을 함께한 동지들 소개 등에 이어 추모특별강연,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현대 학생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역사발전, 민족통일 등은 이수병선생의 운동관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금과 같이 학생운동이 위기를 겪고 있는 때에 학생운동 대표들은 이수병 선생의 조직관을 몸소 실천해야 대중들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날 추모제에 참여한 총학의 한 관계자는 학생운동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제 선생이 간직하고 떠났던 자주 민주 통일의 비원을 가슴에 다시 불꽃피워 그 순결한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 경희인들의 의무이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참민주인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이수병선생 기념사업회측은 추모식의 의의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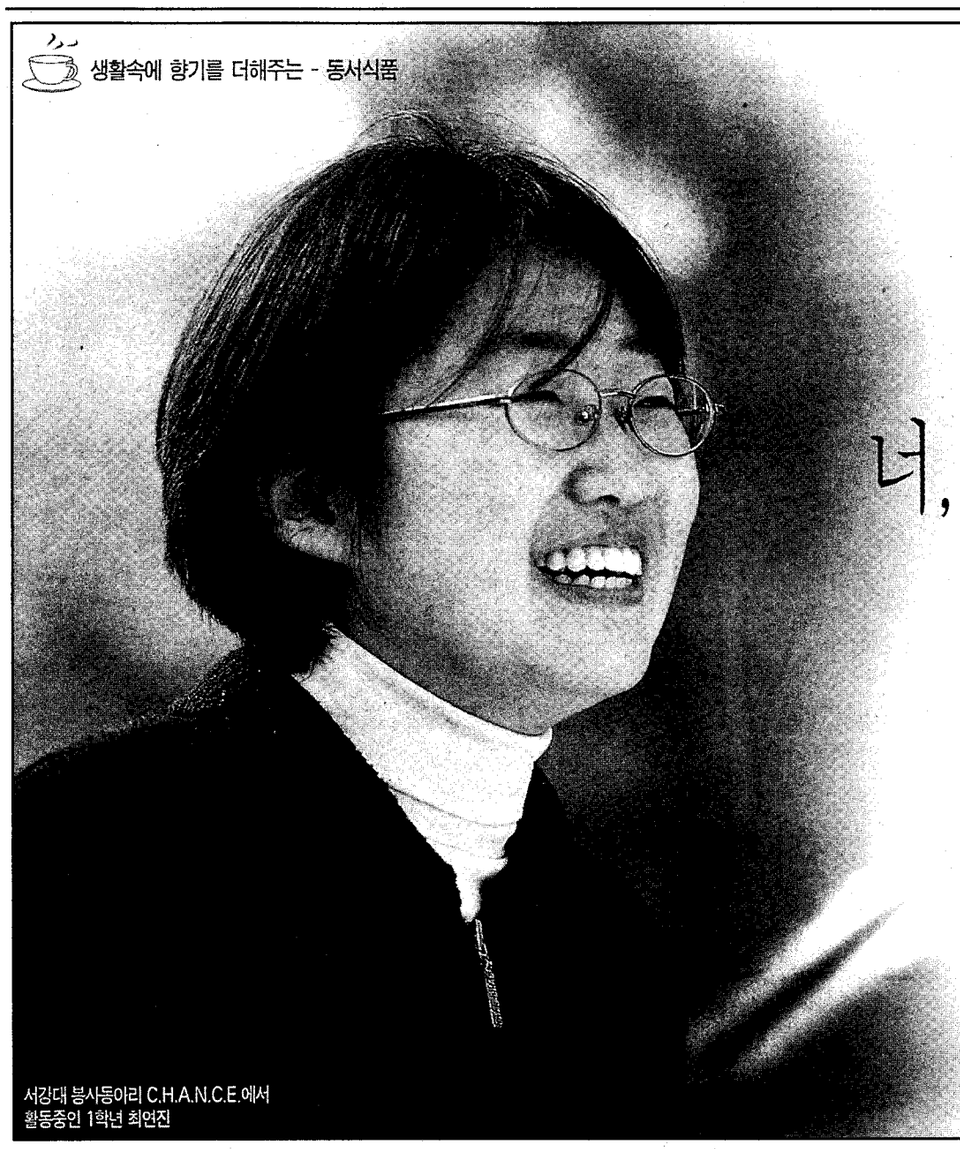
사월혁명 민족통일운동 민주변혁운동지도자로 각인되어 있는 이수병 선생은 부산대 교육학과 1년 수료후 1959년에 우리학교 경제학과 2학년에 편입하였고, 민족통일을 위해 일하다 1974년 이른바 '인혁당사건'에 연루되어 연행되고 1년 뒤인 1975년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되었다. 〈김수란 기자〉

고 이수병선생 연혁

1936	경남 의령군 부림면에서 태어남
1959	경희대 경제학과 2학년 편입
1960	경희대 〈민족통일연구회〉 만듦
1961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민족통일 촉진궐기대회〉에서 학생대표로 연설, 혁명재판소 심판2부 확정 판결, 서울교도소 수감
1974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연루되어 연행
1975	서대문구치소에서 사형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30th Anniversary 생활속의 향기 30년 동서식품 30년



서강대 봉사동아리 C.H.A.N.C.E.에서 활동중인 1학년 최연진

자유, 사랑, 낭만…… 젊음의 향기로 채워가는 대학생활-
누구나 품어 보는 향기외에 조금 특별한 향기를
더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선배들과 함께
미아 7동 어린이 사랑방을 찾아가는 최연진 양.
뒷풀이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그날만은 모두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재촉하죠.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함께

너, 나 그리고 우리-더불어 사는 삶이 향기롭습니다

C.H.A.N.C.E. 동아리회원들

놀아주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를
내놓고도 오히려 즐거운 얼굴입니다.
"제 작은 힘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너' 없인 '나'도 없는 거잖아요."
향기로 채워가는 젊은 날-여러분은 지금,
어떤 향기로 채우고 계십니까.

더불어 사는 삶이 향기롭습니다.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동서식품

동서식품
http://www.dongsuh.co.kr

향기로운 생활문화를 동서식품이 이끌어갑니다
●동서 커피문학상 ●「맥심배」 생활체육 전국 스키대회 ●동서음악제 ●동서 장학회 설립, 운영 ●국군 부대 자매 결연